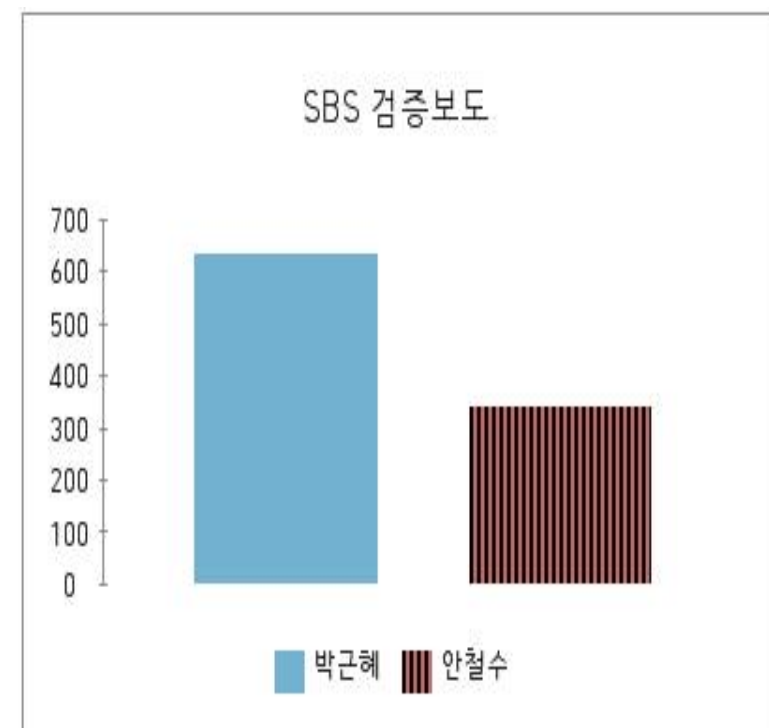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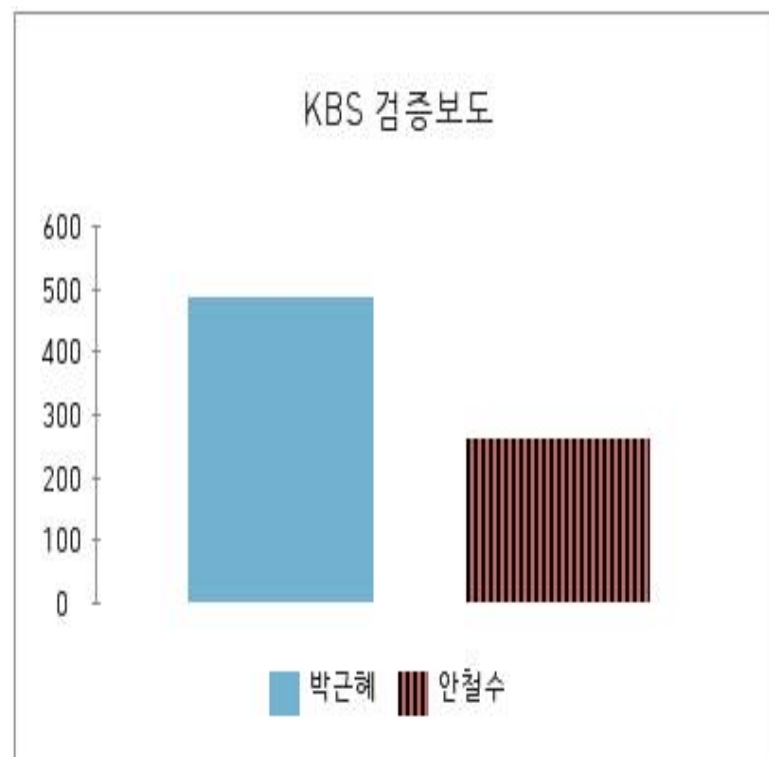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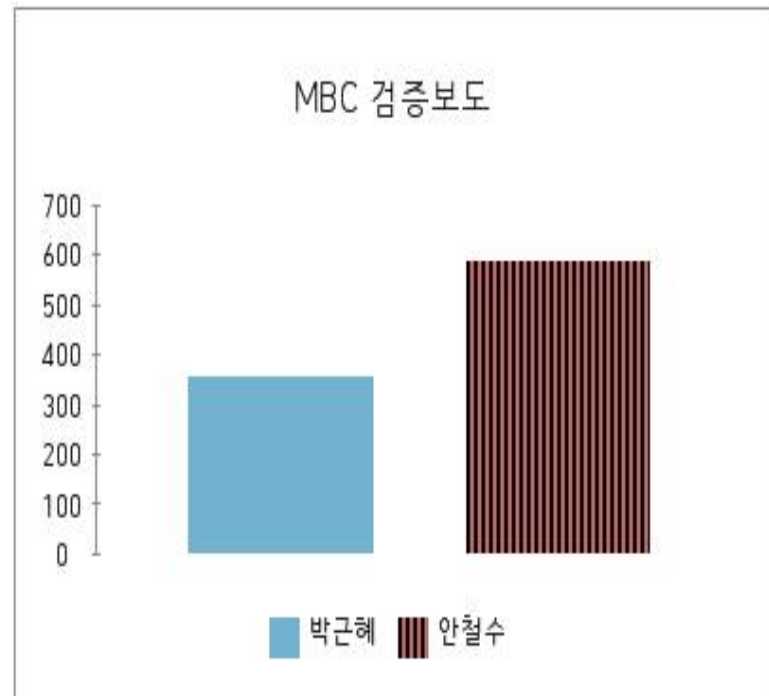


민실위 보고서

왜 유독 MBC만 그럴까?

MBC 조합원들이 170일간의 파업을 접고, 업무에 복귀한지도 두 달이 넘었다. 아직 김재철이 MBC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MBC 조합원들은 파업 기간 동안 열망해왔던 공정보도를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시사매거진 2580>은 'SJM사태'와 '현병철 인권위 위원장 문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다루는 등 공영방송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인권과 노동, 정의 문제에 천착하고 있어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반면 MBC 기자 일의 본류(本流)라고 할 수 있는 <뉴스데스크>는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많은 기자들이 굵직한 특종을 건져 내고, 한 컷 한 컷 정성을 다해 현장을 화면에 담아내는데도 말이다. 가장 큰 이유는 MBC 뉴스가 편파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부 뉴스가 그렇다. 타 방송사와 비교하면 그 편향성은 더욱 도드라진다.



1. 수치로 봤을 때 MBC vs KBS, SBS

MBC 노동조합 민주방송실천위원회는 MBC <뉴스데스크>가 유력 대선 주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무소속 안철수 두 후보의 개인 문제에 대해 어떻게 검증했는지를 따져봤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개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의 검증이 별로 없었던 만큼 이번 검토에서는 생략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한 언론의 검증은 박 후보의 과거사 인식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룸살롱, 전세 아파트, 산업은행 뇌물 의혹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의혹 제기가 있었다. 민실위는 <뉴스데스크>가 이들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정량적인 비교를 해 봤다. 기간은 조합원들이 파업에서 복귀한 7월 18일부터 박근혜 후보가 자신의 역사관에 대한 사과하기 하루 전인 9월 23일까지이다. (앵커멘트는 시간 계산에 포함시켰고,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이거나 반론은 계산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는 현재 MBC뉴스의 민낯을 잘 보여준다. 특히 MBC <뉴스데스크>를 KBS <뉴스9>과 SBS <8시뉴스>와 같은 조건으로 비교해 보면, MBC 뉴스, 다시 말해 MBC 정치부가 지향하는 바가 쉽게 눈에 들어온다.

MBC는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인식 문제 등에 대해서는 총 357초를 다뤘다. 반면 안철수 후보의 개인 문제에 대해서는 584초를 다뤘다. <뉴스데스크>는 박근혜 후보의 검증보다는 안철수 후보의 검증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반면 KBS는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총 483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262초를 다뤘다. 검증 보도의 비율은 <박근혜 : 안철수 = 2 : 1>에 가깝다.

또 SBS는 박근혜 후보 검증에 632초, 안철수 후보에 337초를 할애했다. 역시 검증 보도의 비율은 <박근혜 : 안철수 = 2 : 1>에 근접한다.

MBC만 안철수 후보 의혹에 대한 보도 시간이 타사에 비해 훨씬 더 많았다. 이는 MBC 정치부의 특정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는 **작년 10.26 재보궐 선거 보도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당시 노동조합은 ‘<뉴스데스크>가 박원순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469초, 반면 나경원 후보는 157초를 방송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김장겸 정치부장은 ‘의혹이 제기되면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보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을 했었다. 하지만 사실은 **박원순 후보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면 즉각 보도하지만, 나경원 후보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면 외면**하거나, 마지못해 뒤늦게 보도했음을 이미 증명한바 있다.

심지어 당시 공정방송협의회에 참석했던 김재철 조차도 편파 보도를 인정하고, ‘다시 편파보도가 벌어지면 사장을 쫓아내라’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했다.

2011년 11월 3일, 공정방송협의회.

노동조합 위원장 : 그런 면에서 이 선거방송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번 10.26보궐선거 이것은 그런 면에서 완전히 부합되지 않는 보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면에 저희가 총체적인 문제고, 각 세 분의 지휘라인에 계시는 세 분(보도본부장, 보도국장, 정치부장)의 책임을 명기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일단 사장님이 흔쾌히 동의를 하신 것입니까, 지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시...

사 장 :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다음에 진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후배들이 나가라고 그러면 우리 셋이 그냥 연판장을 다 돌려서 나가라고 그러십시오. 절차를 이것을 개선하자고. 빨리 개선하자고.

반면 KBS는 이번 선거부터 의혹에 대한 검증팀을 따로 꾸려 가동하면서, 의혹의 사실여부를 직접 따져보고 보도하고 있다. 이는 ‘입맛에 맞는 의혹’이 특정 정치세력이나 타 언론으로부터 제기되면 ‘앞 뒤 안 가리고 받아먹는’ MBC의 보도 행태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2. 내용을 봐도 MBC vs KBS, SBS

어제(24일) <뉴스데스크>는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관련 사과를 2개 꼭지로 다뤘다. 특이한 것은, 그런 뒤 따로 박근혜 후보 동정 리포트를 하나 더 보도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MBC는 박근혜 후보가 부산으로 내려가 택시기사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나고, 싸이의 ‘강남스타일’ 말춤을 따라했다는 소식을 상세히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25일)은 국군 유해 발굴 현장까지 방문할 것이라고 다음 일정까지 전해줬다.

하지만 KBS와 SBS는 모두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사과 리포트 안에 부산 방문 소식을 한 문장으로 짧게 다뤘을 뿐이다.

	과거사 사과	박근혜 동정	문재인 동정	안철수 동정
MBC	2개	1개	1개	1개
KBS	1개		1개	1개
SBS	2개		1개	1개

이는 최근 MBC의 뉴스 편집 경향과도 매우 동떨어진 것이다. MBC는 지난 21일과 23일 세 후보의 동정을 모두 묶어 1꼭지로 보도했다. 반면 당시 KBS와 SBS는 후보별로 1꼭지씩 따로 할당해 각 후보들의 동정을 상세하게 보도했었다. MBC가 후보 동정으로 1꼭지를 할 때, KBS와 SBS는 3꼭지를 했던 것이다.

그러던 MBC가 어제는 느닷없이 후보별로 꼭지를 할당해 굳이 박근혜 후보의 동정을 상세히 보도한 것이다.

송영선, 홍사덕 보도 등 편파 사례 줄이어

MBC만의 독자 행보는 지난 19일에도 있었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친박계인 송영선 전 의원의 금품 요구 과문을 박근혜 후보의 동정에 끼워 넣어 짧게 다뤘다. 그 것도 박근혜 후보의 쇄신 의지를 강조하는 밑 재료로 썼다.

반면 KBS와 SBS는 송영선 전 의원의 비리 소식을 모두 한 꼭지로 따로 보도했다. MBC 정치부의 기사 가치 판단이 매우 독특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아니면 기사 가치를 전혀 판단하지 못하는 ‘고도의 무능함’이라고도 말 할 수도 있겠다.

게다가 KBS와 SBS는 방송 뉴스답게 모두 송 전 의원의 녹취를 방송했다. 송 전 의원의 녹취가 방송되지 않은 것도 역시 MBC뿐이다.

이런 경향은 홍사덕 전 의원 수뢰 의혹 보도의 연장선상이다. 홍 전 의원은 박근혜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여권의 거물이다. 또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공적 기관인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다.

지난 17일 <뉴스데스크>는 이런 중대한 사안을 단신으로 처리하는 ‘과감성’을 보였다. 이는 야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의원 수뢰의혹에 대해 연일 보도하던 태도와는 180도로 다른 것이다. 물론 SBS는 홍 전 의원 수뢰 의혹을 리포트로 다뤘다. 다만 같은 날 KBS가 이 사안을 MBC처럼 단신으로 다뤘다는 것이 MBC 정치부에게는 유일한 위안거리일 것이다.

정몽준, 이재오 의원이 박근혜 측을 원색적인 용어로 비난했을 때도 KBS와 SBS는 모두 리포트를 했는데, MBC만 빼먹었었다. 성폭행이 사회적 이슈였을 때 MBC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할 것 없는’ 사과와 대책 마련 지시를 유일하게 따로 한 꼭지로 리포트 했다. 이런 것 말고도 방송3사 가운데 MBC만 튀었던 사례는 너무 많다.

여권과 김재철의 공생관계

한 네티즌은 송영선 전 의원의 MBC 기사를 두고 “이런 엠비씨~ 에라이 엠비씨~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손과 발을 묶네~”라고 비꼬았다. 지금은 시청자들로부터 이런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다. 김재철의 MBC는 이런 편파 방송을 대신 때까지 이어갈 셈이고, 김재철의 생사여탈권을 쥔 여권은 김재철을 보호해 줌으로써 오늘도 질긴 공생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